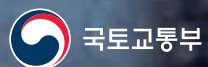


비 오면 무조건 감속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T S 한국교통안전공단

T S MAGAZINE

T S

M A G A Z I N E

2026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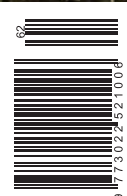
Vol. 87

2026 SUMMER Vol.87

T S 한국교통안전공단



오늘도 무사고



ISSN 3025-5213



질은 녹음이 도로 가장자리를 채우고,
창문 너머로는 뜨거운 여름 바람이 스쳐 갑니다.
어딘가 떠나고 싶은 마음에
차 안의 음악도 조금 더 커지는 계절

마음은 들떠도 출발하기 전,
타이어 공기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장거리 운전 전 충분히 쉬어가기.
갑작스러운 소나기 앞에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잠간의 점검과 작은 배려가
올여름 여행을 무사히 완성하고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냅니다.

반짝이는 여름 햇살 아래
오늘의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오늘도 무사고.



CONTENTS

발행인 정용식(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발행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발행일 2026년 6월 1일(제87호 여름호)
 홈페이지 www.kotsa.or.kr
 기획·제작·인쇄 경성문화사

※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TS 매거진>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의 도서집지 윤리 강령 및 집지 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Theme_ 운전자 무사고

08	ZOOM IN	“오늘도 무사고 운전,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12	한눈에 INFO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놀라운 효과!
14	피플 스토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 김경만 TS 교통안전처 차장
18	TS 플레이 GO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계기판 아이콘 모음 ZIP!
20	독자와 수다	운전하며 겪은 최악의 운전자 유형을 알려 주세요!

늘함께 하자GO

24	이 계절 안전	휴가철 운전자들이여, 날씨의 무게를 견뎌라!
26	스마트 테크	사고 직후 차량 스스로 구조 요청...‘이콜(eCall)’의 진화
30	교통 이슈	“술만 위험한 게 아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약물 운전’
34	캠페인 365	“오늘도 무사고” 전국으로 고고GO!
38	TS 이슈	이제는 신속배달 말고, 안전배달! 배달 문화도 안전해질 수 있을까?
40	TS 뉴스룸	

즐겁게 웃자GO

44	TS 커피 충전소	뜨거운 햇살 아래 찾아온 시~원한 행복 TS 김천드론자격센터
50	TS 파트너	현장의 목소리로 도시의 안전을 가꾸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무사고 문화 박영웅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54	TS 동호회	27g으로 얻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 TS 탁구회
58	솔직담백 토크	천하제일~ 폴리 자랑~! 여러분만의 출근길 BGM을 들려 주세요!

다함께 가자GO

62	언박싱 투어	바야흐로 페스티벌의 계절, 이런 축제는 어떤가요?
66	길 위의 인문학	표지판의 인문학 ‘일단 멈춤’의 역사
70	TS 안전 스쿨	교통안전 Why? How?
72	TS 스토리 톤	‘가도 되나?’ 고민된다면 멈추고 살피는 우회전 이야기
74	TS Talk톡	
76	TS 독자 후기 & 퀴즈	
78	TS 색칠 시간	

2026
SUMMER VOL.87



홈페이지



블로그



웹진



유튜브

01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사이로
여름은 천천히 도로 위에 내려앉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
익숙한 길일수록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고
긴 운전 끝에는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
양보를 망설이지 않는 순간.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길 위의 안전한 풍경을 만듭니다.

운전자 무사고

오늘도 무사

GO



QR 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에서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고 운전,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TS,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내비게이션' 역할 특독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우리 일상의 이동과 물류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이에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 취득부터 교육, 체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 안전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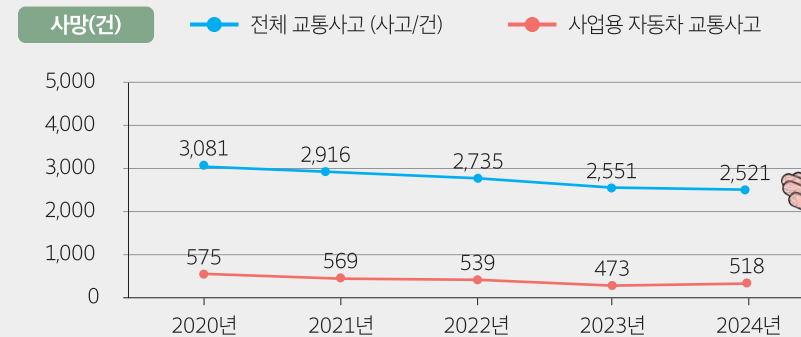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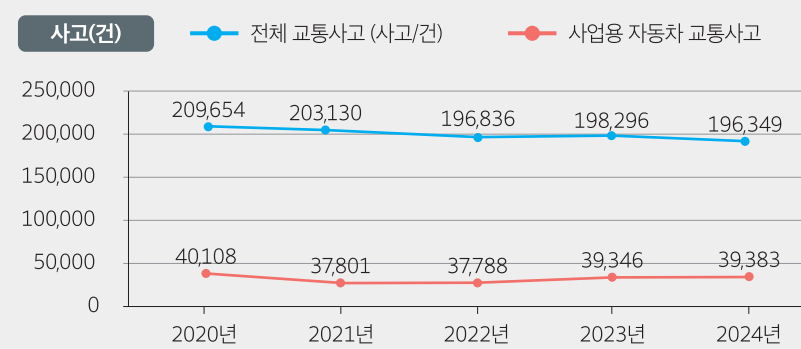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위험성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5년 기준 약 2,600만 대며, 이 중 사업용 차량은 약 150만 대로,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4년 전체 교통사고는 19만 6,349건, 사망자는 2,5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3만 9,346건, 사망자는 518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차량 비중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 같은 특성은 최근 5년간 사고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2020년 약 4만 건에서 2021년 3만 7,000건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023년과 2024년에는 약 3만 9,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 수 역시 연간 500명 안팎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TS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에 따르면, 2025년에

는 이동량이 급증하는 7월과 12월에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시내버스와 일반화물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상과 밀접한 교통 수단일수록 사고 노출 빈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처럼 사업용 자동차 사고는 발생 규모와 시기, 유형 전반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건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장시간·장거리 운행이 많고, 대형 차량 비중이 높다. 이로 인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 역시 일반 차량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결국 사업용 차량 사고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자격 관리부터 교육, 운행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추이

출처_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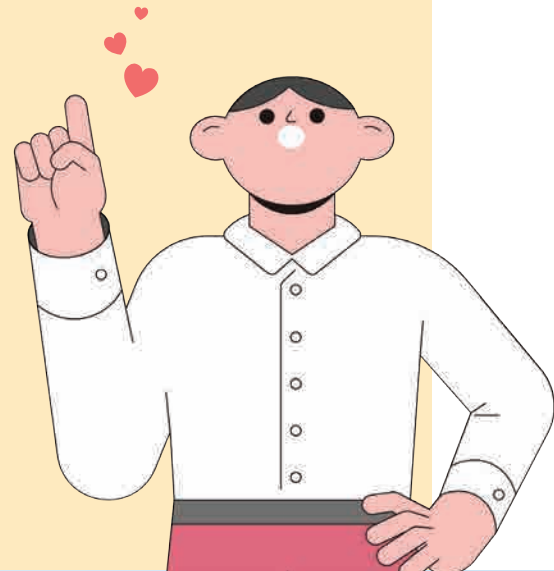
2025년 사업용 차량 업종별 교통사고 현황

출처_TS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업종별	발생건수
고속버스	21
농어촌버스	113
마을버스	984
버스	
시내버스	3,964
시외버스	97
전세버스	1,183
특수여객자동차	6
택시	
개인택시	5,495
일반택시	5,586
화물	
개별화물	752
용달화물	2,066
일반화물	3,693



TS가 구축한 교통안전 체계는 운수종사자를 넘어 도로 위 국민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듯, TS는 '오늘도 무사고' 목적지를 향해 운전자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이끌고 있다.



TS가 설계하는 사업용 운전자 안전의 여정

TS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단계부터 적성검사, 교통안전 교육, 체험교육,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도로 위에 나서기 전부터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추고, 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하듯, TS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 안전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오늘도 무사고'라는 목적지로 안내하고 있다.

안전운전의 출발점, 자격 검증

사업용 운전자 안전관리의 출발점은 운전자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TS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해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장시간 운행과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사업용 운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적성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다. 이에 TS는 운수종사자의 수검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 수도권 및 충남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천안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신규 개소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성검사는 사업용 운전자 안전관리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천안 운전적성정밀검사장



TS 운수종사자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체험교육



또한 사업용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운전자는 신규 운전적성정밀 검사 통과 이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성과 안전의식을 한 번 더 검증받는다.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교통법규 이해와 안전운행 능력, 직업 운전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용 차량의 특성상 일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이 요구되며, 자격시험은 이러한 최소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 기반 교육으로 완성하는 현장 대응력

TS는 운수종사자가 도로 위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다. 사업용 운전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이론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이에 TS는 방어 운전 요령, 사고 사례 분석, 위험 예측 훈련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페달 오조작이나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하며 교육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이는 '사고 이후 학습'이 아닌 '경험을 통한 사전 대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운전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TS는 운전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은 실차 체험 중심 프로그램과 취약 환경 주행 훈련을 확대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은 신규 진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와 안전운전 기준

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배달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법규, 올바른 조향 방법, 급제동 및 커브 주행 기술 등 이륜차 특성에 맞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운송수단별로 요구되는 안전 역량은 서로 다르다. 버스는 승객 보호, 택시는 도심 교통 대응력, 화물차는 장거리 운행 안전, 이륜차는 기동성과 노출 위험 관리가 핵심이다. TS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오늘도 무사고' 목적지를 향한 TS 안전관리 시스템

TS는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 택시)의 위험운전행태를 분석·제공하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안전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하며,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전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이륜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항 내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TS가 운영하는 사업용 운전자 안전관리 체계는 '자격 검사 → 교육 →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포괄한다. 이는 TS의 교통안전 정책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기 위함이다. 운전자의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놀라운 효과!

TS,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장착 시범사업' 결과 공개

급발진 의심 사고와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TS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실제 사고 예방은 물론 운전습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11, 전국 10개 시도 택시차량 374대에 장치 장착
'25.12.~'26.2. 실증데이터를 수집
그 중 유효한 데이터 227대를 대상으로 분석 시행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운전자가 저속 주행이나 후진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을 경우 차량의 급가속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경고음과 표시등으로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고, 필요시 가속 입력을 제한해 사고 위험을 줄인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효과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2월 기준

오조작
53.4% 감소

과속
21.0% 감소

분석 규모

전국 법인택시 227대, 총 운행거리 2,117,423km, 총 운행시간 108,975시간



장치 작동 현황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3,628회 작동, 속도제한 기능 316,099회 작동

운전습관 변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작동 횟수(PUA)

0.204회/100km
↓
0.095회/100km

53.4%

*PUA; Prevent of Unintended Acceleration

속도제한 작동 횟수(B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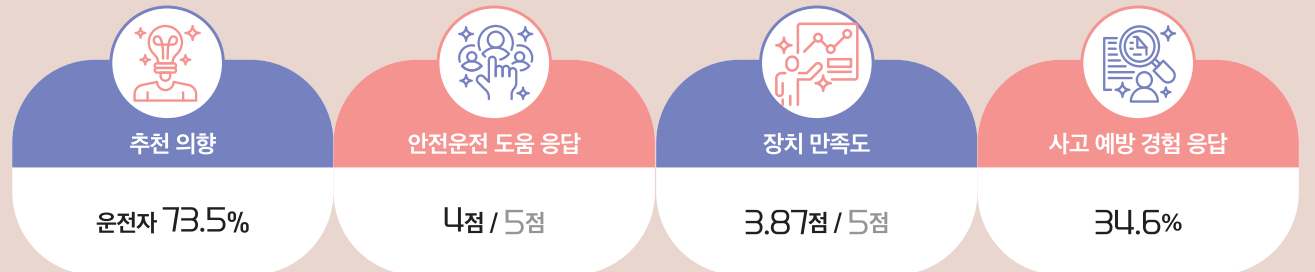
16.61회/100km
↓
13.12회/100km

21.0%

*BTO; Brake Throttle Override

TS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장착 시범사업' 결과, 위험한 운전행태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법인택시 회사 차량 227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11만 km가 넘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상적인 가속 상황에서 작동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기능은 총 3,628회 작동했고, 과속 상황에서 개입하는 속도제한 기능은 총 316,099회 작동했다. 장치 작동 횟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작동 횟수는 53.4%, 속도제한 작동 횟수는 21.0% 감소해 운전자들의 급출발·급가속·과속 행태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장치가 위험 상황 제어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했음을 보여 준다.

사용자대상 만족도 조사



“실수는 줄고, 안전은 커졌다! 데이터로 확인한 첨단안전장치 효과”

조사에 참여한 운전자 296명 가운데 73.5%는 “주변 운전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5점 만점에 4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3.87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제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가운데 실제 사고 예방 사례도 확인됐다.

좁은 골목길에서 급가속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치가 개입해 충돌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후진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치가 작동해 사고를 예방한 사례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예방관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



고령 운전자 증가와 전기차 확산 등 교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페달 오조작 사고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업계와 정책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운전자 실수가 아닌 예방 가능한 안전 문제로 바라보며,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미래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과 제도 변화 방향을 함께 짚어 봤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7년째 근무하며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김경만 차장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처에서 고령 운전자 등 교통사고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 사업과 첨단 안전장치 보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TS에서는 현재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요?

TS는 현재의 상황을 '교통안전의 중대 위협 요소'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페달 오조작 통계가 별도 집계되지는 않으나, 삼성화재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련 사고가 연평균 2,000여 건, 매월 160건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사고의 25.7%, 즉 4건 중 1건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견잡을 수 없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TS에서 발표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운영 효과성'과 향후 보급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 시범사업의 효과와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 TS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장치'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227대의 운행 데이터 분석에서 페달 오조작은 53%,

과속 비율은 21% 감소하는 등 운전 습관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운전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5점 만점에 4점을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34.6%는 실제 상황에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몇 년 사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TS에서는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를 어떤 특징을 가진 위험 요소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페달 오조작 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단순한 실수가 '다중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페달 오조작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차량이 돌진하며 패닉에 빠진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페달을 더욱 강하게 밟아 오히려 최고 출력으로 가속하게 되는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 운동 신경의 협응력 감소로 인해 발을 고쳐 밟는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고, 서울시 등 지자체 연계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TS는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우 고무적이고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합니다. TS가 마중물 역할을 했던 첫 시범사업 이후, 정부와 지자체 차원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제도, TS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현장 밀착형 행정력이 결합할 때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TS는 앞으로도 장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고도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경만
TS 교통안전처 차장



최근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가능성이 화두입니다. 실제 제도화는 논의 단계와 국내 도입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제적인 공감대도 이미 형성됐습니다. 지난해 6월 UN 산하 기구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국제 안전기준이 채택됐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029년부터 신차 장착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일정대라면 승용차는 2029년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차는 2030년부터 의무 장착됩니다. 다만 신차 의무화까지의 공백기와 기존 차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TS는 올해 안으로 '애프터마켓(출고 후 장착)' 장치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존 차량 운전자들도 안심하고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장치의 작동 원리를 생소해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현재 TS에서 시범 보급하고 있는 애프터마켓용 장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차량 내 가속페달위치센터(APS)에서 전자제어장치(ECU)로 가는 신호선을 분리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연결하고 운전

자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가속페달을 깊고 빠르게 밟으면, 센서가 이를 '비정상적인 오조작'으로 판단해 이 즉시 엔진 출력을 강제 차단하여 추가적인 가속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보면 이 오조작 사고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가장 취약한 순간은 '발의 이동이 잦은 좁고 복잡한 공간'입니다. 삼성화재 데이터를 보면 주차/출차 상황이 전체의 48.0%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주행/회전 중(30.1%), 감속/정지 중(21.9%) 순이었습니다. 주차장이나 골목길을 생각해 보시면, 좁은 공간에서 차를 움직이기 위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수시로 번갈아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의 위치를 착각하거나, 후진 기어와 전진 기어를 혼동한 상태에서 차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때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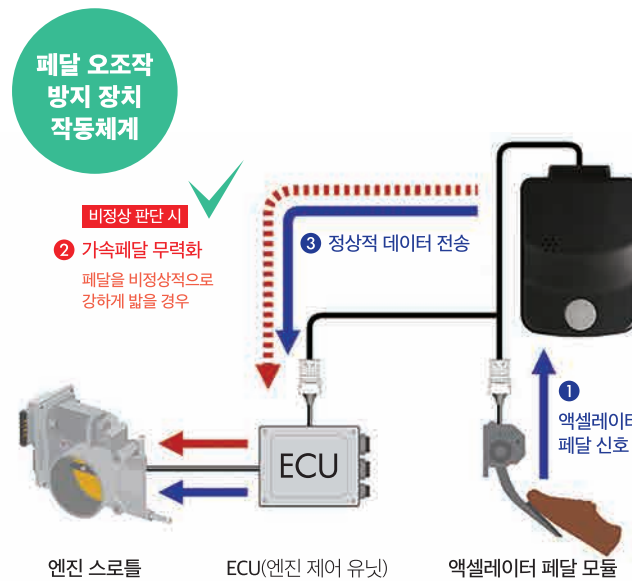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이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와 자율주행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미래 안전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향후 10~20년 동안은 여전히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차들이 도로의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카메라나 레이더로 외부 장애물을 인식해 차를 세우는 긴급제동보조(AEB) 기술과 더불어, 운전자의 내부적인 '행동 오류'를 시스템이 감지하고 차단하는 이 장치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미래 자동차의 완벽한 능동형 안전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 운전자 안전장치 보급 정책이 활발합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면요?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서포트 카'로 지정해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 기존 차량 153만여 대에 관련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일본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결단을 통해 애프터마켓용 안전장치 보급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작동 시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TS가 바라보는 미래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방향과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앞으로의 교통안전은 운전자의 주의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실수를 해도 시스템이 사고를 막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초고령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S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자기 뜨면 식은땀, 이 표시 뭐야?”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계기판 아이콘 모음 ZIP!

컬러 CHECK!

경고등 색상에 따라 차량 상태의 긴급도를 알 수 있다!
색깔의 의미만 알아도 위급한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 즉시 점검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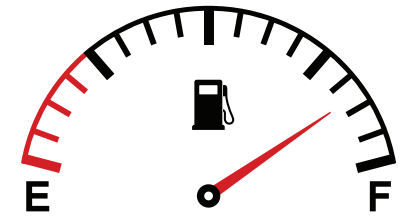
계속 주행하면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차량에 이상 감지!

당장 멈춰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빠른 점검이 필요하다.

● 차량 정상 작동!

경고는 아니지만 현재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동차 계기판 아이콘은 차량 상태를 빠르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작은 경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오늘도 무사GO' 운전의 시작이다.

빨간색 '위험' 경고등



브레이크 경고등

- 의미** 브레이크액이 부족하거나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해결** 주차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정비소에서 점검받으세요.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 의미**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압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 해결** 즉시 차량을 멈추고 엔진 오일량을 점검한 뒤 보충해야 합니다.

에어백 경고등



- 의미** 에어백 또는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 해결** 시동 후에도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정비소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냉각수 수온 경고등



- 의미** 엔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과열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 해결**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엔진을 식히고 냉각수를 점검하세요.

노란색 '주의' 경고등



엔진 경고등

- 의미** 엔진이나 배출가스 제어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 해결** 급가속을 피하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압 타이어 경고등



- 의미**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 해결** 가까운 정비소에서 공기압을 점검하고 보충하세요.

ABS 경고등



- 의미** 급제동 시 바퀴 잠김을 방지하는 ABS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 해결** 일반 제동은 가능하지만 안전 기능 점검을 위해 정비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ESC 작동 정지 표시등



- 의미** 차량 자세를 제어하는 ESC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 해결** 미끄러운 도로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상태' 표시등



미등 표시등

- 의미** 미등 또는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 해결** 주행 환경에 맞게 점등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등합니다.

하향 전조등



- 의미** 일반 주행용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 해결** 야간이나 흐린 날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향 전조등



- 의미** 상향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 해결**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하향등으로 전환해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해야 합니다.

안개등 표시등



- 의미** 안개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 해결** 안개나 비가 오는 날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막힐 때 미리 줄 안 서고 끝까지 가서 썩 끼어드는 양체 차량들 진짜 최악이에요. 직진 차선에서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차량 때문에 갑자기 위험하게 차선을 옮겨야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정직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기적인 운전 매너,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문정O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느라 속도 늦추고 차선 밟으면서 비틀거리는 운전자 최악입니다.
김보O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고, 바로 급브레이크 밟는 운전자요. 한순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서 안전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O



보복 운전자가 제일 최악입니다. 솔직히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사고 날까 봐 정말 겁나요.
정진O



보복 운전의 시작, 위협적인 바짝 붙기. 뒤에서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압박하는 행위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김명O



'깜빡이' 실종형!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후 끼어드는 차량이 제일 당황스러워요. 배려 없는 운전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합니다. 기본적인 매너는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신경O



추월했다고 보복하듯 옆에 바짝 따라오는 차량! 제가 차선을 바꿔도 끈질기게 옆에 붙어서 위협하듯 속도를 맞추는 바람에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무섭고 당황스러웠답니다. 혹시라도 접촉 사고가 날까 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고, 단순히 추월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하듯 운전하는 행동을 직접 겪으니 운전대를 잡는 게 한동안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혜O



운전하며 겪은 최악의 운전자 유형을 알려 주세요!

도로 위에는 수많은 운전자가 함께 달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운전하며 겪었던 위험하고 아찔했던 '최악의 운전자 유형'을 <TS 매거진>에 공유하여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시내 도로에서 규정속도로 가는 중이었어요. 뒷차가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클락션을 울려 눈치 보며 운전하고 있었어요. 뒷차가 추월하더니 제 차 앞으로 왔어요. 창문 내리더니 왼손 가운데 손가락 높이 울리며 제게 욕했어요. 정말 기분 최악이었어요.
김미O



어름호 독자 설문조사 당첨자

커피 교환권 기프티콘 30명

✧ 이메일 발송 ✧

- 신상O aga****@
- 김명O sma****@
- 최지O wlt****@
- 김수O akt****@
- 정혜O drs****@
- 임효O try****@
- 김한O rla****@
- 허은O sai****@
- 최윤O kyu****@
- 지수O jia****@
- 정향O dyd****@
- 김혜O you****@
- 황아O fls****@
- 민진O fkd****@
- 김하O mis****@
- 김화O whd****@
- 백은O bai****@
- 김민O lli****@
- 정진O keb****@
- 정술O gid****@
- 이혜O dnw****@
- 신경O kyo****@
- 조현O cjt****@
- 최민O bir****@
- 주은O mmu****@
- 김성O lim****@
- 김미O kms****@
- 김보O 4fk****@
- 문정O iri****@
- 윤셋O byc****@

*이름 두 글자와 이메일 주소 앞 세 자리로 표시 상품 지급일: 6월 30일(화)

*당첨자에 한하여 커피 교환권을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tsmagazine2@gmail.com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02

Let's always go together

아는 만큼 지키고,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오늘의 이슈를 짚어 보며
더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교통안전, 늘 함께 실천해요!

늘함께 하자

GO

휴가철 운전자들이여, 날씨의 무게를 견뎌라!

타이어 점검부터 폭우·폭염 속 안전운전까지, 휴가철 꼭 알아야 할 차량 안전수칙

여름철 날씨는 타이어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로 인해 자동차를 주저앉히고, 급작스러운 폭우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즐거운 휴가철 뜻밖의 위험을 무사히 지나칠 '여름철 차량 안전'에 대한 수칙을 이야기해 본다.

마을버스를 운전해 떠난 677일간의 세계 일주. 도로 위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기며 축적한 안전운전 경험치. 여름철 도로는 단순히 아스팔트로 된 길이 아니라, 하늘의 표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 가혹한 계절, 여름

우리나라의 여름은 겨울 못지않게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계절이다. 지열은 50℃를 훌쩍 넘고,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우는 도로를 순식간에 강으로 바꾸며, 직사광선 아래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외부 온도의 2~3배까지 치솟는다. 이는 잠깐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기계적 결함과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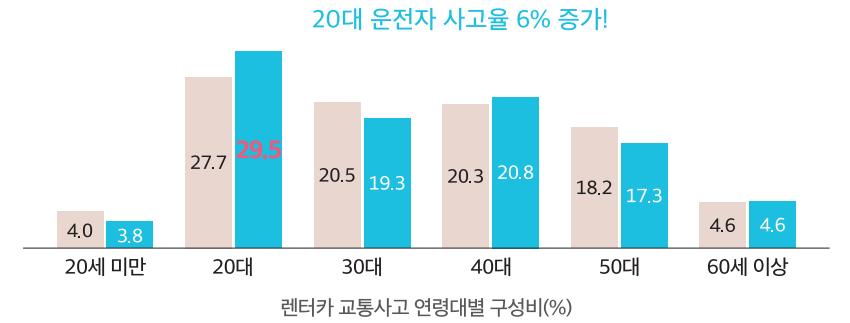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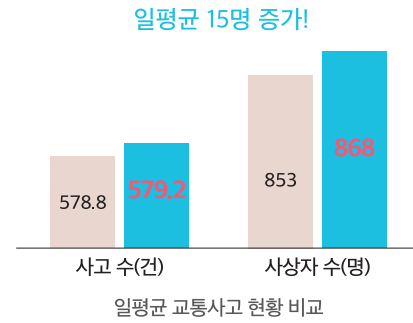
특히 휴가철에는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차량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 평소 자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 상태나 냉각수·배터리 점검 여부를 놓치기 쉽고, 차량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일수록 작은 이상 신호를 지나쳐 문제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는 예방만큼 확실한 처방이 없다. 여름철일수록 출발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기본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



2018-2022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통계

자료_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평상시 ■ 여름 휴가철 (7/16~8/31)



휴가철 자동차 관리와 운전 요령

01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는 운행 시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발이다. 발에 맞는 신발이 중요하듯 '적정 수준'의 공기압 유지가 핵심이다. 흔히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해다.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가 도로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 열 발생이 심해지고,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물결치듯 변형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으로 파손될 위험이 크므로 가까운 정비소에서 공기압을 체크해야 한다.

02

○냉각수와 엔진 과열 방지○

엔진은 인간의 심장과 같기 때문에 여름철엔 냉각수 점검이 필수다. 계기판의 온도계가 평소보다 높게 올라간다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식혀야 한다. 이때 성급하게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장거리 운행 전에는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를 미리 점검해 과열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수막현상과 감속 운행○

비 오는 날 도로는 얼음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형성되어 조종 능력을 상실하는 수막현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속'이다. 차가 뒤집히거나 방향이 틀어질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호우 시에는 평소 속도의 20~50% 감속이 필요하다. 브레이크 역시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평소 안전 운전 습관이 빛길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전기자동차,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안전할까?

최근 급증한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은 적지 않은 불안 요소다. 특히 차량이 물에 잠기면 감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와 주요 전장 부품이 방수·절연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술적으로 감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진입은 피해야 하며, 번개가 치는 날에는 실외 충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충전 전에는 커넥터에 물기나 이물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폭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직사광선에 차량을 세워 두거나 고온 환경에서 급속 충전을 반복하면 배터리 온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르는 만큼 충전과 주행 후에는 충분한 열 관리와 환기도 중요하다.

전기자동차 여름철 안전 관리

폭우 시



폭우가 예상된다면? 침수 위험 지역 운행 자제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다면? 즉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빠져 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폭우 시 충전은? 감전 예방을 위해 실내 충전소 이용을 권장

폭염 시



- 직사광선 장시간 노출 피하기
- 가능하면 지하·그늘 주차
- 급속충전 반복 자제
- 충전량 80~90% 수준 유지
- 충전 후 배터리 열 식히기
- 차량 하부 충격·침수 여부 점검
- 이상 냄새·경고등 발생 시 즉시 점검

사고 직후 차량 스스로 구조 요청... '이콜(eCall)'의 진화

eCall

교통사고는 사고 자체만큼이나 사고 이후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중증 외상이나 차량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몇 분만 늦어져도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이콜(eCall, emergency Call)이다.

이콜은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구조 기관에 연락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차량이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는 셈이다. 이콜은 최근 4G LTE 기반 센서와 최첨단 통신 기술의 결합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 사고 신고를 넘어 전후 상황과 맥락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구조 기관의 초기 대응 시간을 줄여 구조 공백을 최소화한다.

통신 기술 발달...이콜 연결성 강화의 배경

이콜의 핵심 작동 원리는 '자동 감지'다. 예컨대 차량 내부 센서가 충돌이나, 에어백 전개 등 사고 관련 신호를 감지해 이콜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초기 이콜 시스템은 2G·3G 기반 회선교환망으로 긴급 통화를 연결하고, 사고 위치와 차량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다만 통신 환경에 따라 데이터 전송 안정성이나 연결 품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줄이기 위해 4G LTE 및 5G 기반의 차세대 이콜(NG-eCall)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차세대 이콜은 긴급 구조 기관과 통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사고 시각과 차량 식별 정보(VIN),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발전한 형태다.



덕분에 사고 발생 이후 구조 기관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야간이나 외곽 지역처럼 사고 발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초기 대응 시간 단축을 돕는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이콜 도입 시 구조대 현장 도착 시간이 도심 지역은 약 40%, 교외 지역은 약 50%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EU가 2018년 4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는 신형 승용차와 경량용차 모델에 이콜 장착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차량 안전 기술이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 공공 안전 체계로 자리 잡은 것이다. 최근에는 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콜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산간이나 일부 음영 구간에서는 여전히 LTE/5G 기반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다. 이때 차세대 이콜과 기존 2G·3G 기반 이콜 사이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이콜' 방식이 활용된다. 하이브리드 이콜은 통신 환경에 따라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선택해 사고 상황에서도 긴급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다.



차량 연결 기술이 이끄는 이콜의 진화

기존 이콜 시스템이 기본적인 사고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차량 연결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차량 내부 카메라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차량 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콜이 구조 신호뿐만 아니라 사고 전후 상황, 차량 상태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방식이다.

차량 충돌 강도나 차량 손상 정도, 탑승자 상황, 화물 정보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구조 기관 역시 사고 유형에 맞춰 발 빠르게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예컨대 화학 약품을 실은 대형 화물차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재된 화물 정보를 구조 센터에 미리 전달, 화학 물질 특성에 맞춘 대응을 도울 수도 있다. 이처럼 차량 위치와 사고 관련 정보가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전달될수록 사고 상황에 맞춘 경찰·소방·의료기관 간 연계도 더욱 원활해진다.

최근에는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과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까지 전송하는 방향의 기술 도입도 논의된다. 구조대원들이 출동 전에 현장을 미리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상황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보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더 나아가 주변 차량과 도로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차량 연결 기술의 활용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사고 대응 체계 고도화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는 V2X(Vehide to Everything)다. V2X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도록 돕는다. 따라서 사고 차량이 발생하면, 뒤따르는 차량이나 주변 교통 인프라에 위험 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야간 도로에서는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직후 후속 충돌 위험이 크다. 이때 V2X로 주변 차량에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릴 수 있다면, 2차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V2X가 고도화되면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사고 이후 대응 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실시간 상황 공유와 사고 예방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생명 살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막는 이콜

이콜의 가장 큰 목적은 사고 초기 대응력 강화를 도와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다. EU의 분석에 따르면, 이콜의 전면 도입으로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의 정도를 평균 15% 완화할 수 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한양대학교 연구진이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한국형 eCall 시스템 개발 및 통합실증을 통한 기대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이콜 도입 시 교통사고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고속도로는 3분 38초, 일반도로는 1분 22초를 단축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해당 효과를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데이터에 적용, 최대 8만 2,662명의 사망자 감소와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이콜을 통한 신속한 의료 조치는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사고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단독 사고나 야간 사고처럼 초기 발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구조 공백 최소화를 돕는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시대로 접어들수록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구조 기관 간 연결성은 더욱 강화된다. 차량이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는 연결 플랫폼으로 변화하면서, 사고 대응 체계 역시 보다 자동화·지능화되는 추세다. 이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고 직후 골든타임 확보와 2차 사고 예방, 구조 효율 향상까지 기능의 폭을 넓히며, 핵심 안전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첨단 기술이 교통의 미래를 바꾸고 있지만, 절대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교통안전이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형태여야 한다. 이콜은 지능화된 사고 대응 체계를 통해 사람을 지킬 핵심 안전 기술이다.



“술만 위험한 게 아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약물 운전’

감기약 한 알도 운전자의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무심코 복용한 약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살펴본다.



평소와 다른 퇴근길, 차량이 몇 차례 차선을 벗어난다. 당황하며 순간 핸들을 바로잡지만, 중심을 잡기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지 못한다. 전날 술은 마시지 않았다. 단지 감기 기운에 약을 먹었을 뿐. 나도 모르는 사이 멍해지는 느낌과 함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감기약 한 알이 만든 위험한 착각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한 직장인의 사례다. 운전자는 피로 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인은 약이었다. 약물 운전이란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부분 약물 운전의 위험은 마약류나 불법 약물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복용하는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치료제, 수면제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감기약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오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유는 약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가 음주처럼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처럼 수치로 확인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상태 변화를 단순 피로나 컨디션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 약물 운전은 더 은밀하고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의 사각지대... '처방약'에 대한 오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면, 운전 전에 복용해도 무방하다는 오해도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대마뿐 아니라 항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항정신성 의약품에는 흔히 알려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이 포함된다.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약 상위 20개 현황

연번	약물명	마약류	효능	처방비율
①	알프라졸람	향정	항불안제	21.24%
②	클로나제팜	향정	항뇌전증제	12.40%
③	로라제팜	향정	항불안제	11.94%
④	졸피뎴	향정	최면진정제	8.69%
⑤	디아제팜	향정	항불안제	7.48%
⑥	펜디메트라진	향정	식욕억제제	7.20%
⑦	메틸페니데이트	향정	ADHD 치료제	4.68%
⑧	에티졸람	향정	항불안제	4.39%
⑨	플루니트라제팜	향정	최면진정제	3.86%
⑩	펜터민	향정	식욕억제제	3.67%
⑪	옥시코돈	마약	진통제	2.27%
⑫	코데인	마약	진해제	2.05%
⑬	트리아졸람	향정	최면진정제	1.89%
⑭	브로마제팜	향정	항불안제	1.75%
⑮	프로포폴	향정	마취제	0.89%
⑯	에스조피클론	향정	최면진정제	0.66%
⑰	클로바잠	향정	항불안제	0.65%
⑱	미다졸람	향정	최면진정제	0.55%
⑲	암페프라몬	향정	식욕억제제	0.51%
⑳	잘레플론	향정	최면진정제	0.4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항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신경안정제, 일부 진통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졸림이나 반응 속도 저하, 각성, 환각 등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처방약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중 인지 능력과 판단력에 영향을 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약물

약물 종류	운전에 미치는 영향
수면제	반응 속도 저하, 판단력 약화
신경안정제	인지 능력 저하
일부 진통제(마약성)	의식 흐림, 반응 지연

처방받은 약이 운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면, 약사나 의료진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 약 봉투 겉면에 있는 '운전 주의' 또는 '졸음 주의' 문구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특히 처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가급적 운전을 피해야 한다.

일상 속 가장 가까운 위험...감기약도 예외가 아니다

감기약은 많은 사람이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의약품 중 하나다. 일부 감기약은 처방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 성분이다. 이 성분은 운전 중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차선 유지 실패 ▲신호 인지 지연 ▲돌발 상황 대응 지연 ▲브레이크 반응 속도 저하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 환경에서는 졸음과 피로가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실제로 고속도로처럼 단조로운 주행 환경에서는 약물로 인한 졸림 증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약물 운전은 어떻게 단속될까

그렇다면 약물 운전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단속 검사가 아니라 행동을 기반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비정상적인 주행이나 졸음 운전, 신호 반응 지연 등을 발견하면, 약물 영향 여부를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행동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시 타액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측정한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약물 검사를 거부할 경우, 실제 약물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CHECK POINT | 약물 운전 처벌 기준

위반 내용	처벌 및 조치
약물 운전 금지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 병행 가능
측정 거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 병행 가능
재범	처벌 수위 강화

결국 기준은 하나...“지금 운전해도 괜찮은 상태인가”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 예방의 핵심으로 '운전 가능 상태에 대한 자가 판단'을 강조한다.

약 복용 후 졸림이나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스스로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운전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스스로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TIP | 운전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처음 복용하는 약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약 봉투에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졸림이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중력이 평소보다 떨어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응 속도가 느려진 느낌이 있는가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 운전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다. 대부분 술은 경계하지만, 약은 쉽게 간과하기 때문이다. 약은 병의 치료를 돕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라도 운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은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운전대를 잡기 전 '지금 운전해도 괜찮은 상태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작은 습관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무사고” 전국으로 고고GO!

2026 TS 릴레이 캠페인
교통안전 신고 출발

전국 곳곳이 ‘오늘도 무사고’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다시 연결됐다. 2026년 시상식은 물론 서울역, 광안리 마라톤, 온라인까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이제 참여형 교통안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Congratulations!

대통령 표창, 장관상에 빛나는 ‘오늘도 무사고’

2026년 TS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그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대통령 표창과 장관상을 얻어 수상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TS는 지난 4월 23일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교통안전문화 확산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교통안전 캠페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한 정책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민관 협력 및 국민 참여 소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TS가 교통안전 메시지를 국민의 일상 속 행동 변화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S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만들고, 현장 중심의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왔다.

특히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 브랜드 아래 과속운전 금지, 무단횡단 금지, 스모비 금지, 안전벨트 착용, 장거리 운전 시 휴식, 운행 전 점검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통안전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언어로 바꾼 것이다.

지난해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대전복합터미널 등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된 현장 캠페인에는 약 2만 명이 방문했고, 안전 실천 다짐 서약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캠페인이 ‘보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로 확장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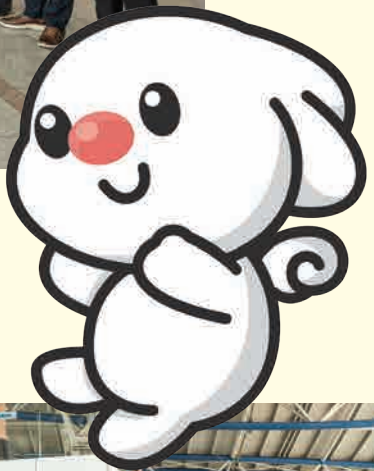
TS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2025 정책소통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에서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역에서 진행된 '오늘도 무사고' 대국민 릴레이 캠페인



서울역에서 시작된 전국 릴레이 캠페인

WHERE'S NEXT?

‘오늘도 무사고’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 4월, TS는 서울역에서 대국민 릴레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과 맞물린 서울역은 여행객과 시민들로 붐볐고, 역사 안 한편에 마련된 캠페인 부스 역시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활기를 띠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 시민들은 ‘오늘도 무사고’ 스티커를 직접 붙이며 교통안전 실천을 다짐했고, ‘오(5)·늘·도 무(0)·사(4)·고’를 의미하는 ‘5.04초 맞추기 스톱워치 게임’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안전 메시지를 접했다. 아이들은 음주운전 고글 체험을 통해 시야 왜곡 상태를 경험했고, 고령자 체험 키트를 착용한 시민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 반응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교통약자의 위험성을 이해했다.

캠페인 현장은 시민들이 웃고 즐기며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안전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광안리 해변을 안전으로 물들이다

올해 캠페인 가운데 가장 뜨거운 현장 중 하나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 마라톤 행사다. TS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연계해 마라톤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4월 5일 광안리 해변 일대는 달리기를 마친 참가자들과 가족 단위 시민들로 가득했다. TS는 현장에 6대 안전수칙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공식 캐릭터 포토존과 체험 이벤트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가족과 연인, 외국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부스를 찾았고, 약 2,900명이 무사고 실천 서약에 참여했다.

기록을 위해 달리는 마라톤처럼, 안전 역시 하루하루 반복되는 실천이 중요하다. TS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문화·체육 행사와 연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특정 장소나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안전을 문화로 만드는 사람들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이 의미 있는 이유는 교통안전을 특정 기관의 업무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TS는 지난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함께 총 548회의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행자와 이륜차 운전자, 버스 이용객,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천을 '오늘도 무사고 1호 도시'로 조성한 이후에는 지자체 협업 모델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4월 5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 마라톤 행사



교통안전은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고, 사회 전체가 이를 지지할 때 비로소 문화가 된다.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무사고 운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현대자동차와 고령 운전자 체험교육, BMW코리아와 온라인 홍보, 볼보코리아와 트럭 운전자 캠페인 등을 함께하며 민간 참여 기반도 넓혀 가고 있다.

오프라인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연계된다. TS는 국토교통부,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교통안전 실천 서약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 페이지에서 교통안전 실천 다짐 댓글을 남기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기부금이 지급돼 나눔 활동으로도 이어진다. 교통안전은 사회적 가치와 연결한 셈이다.

교통안전은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고, 사회 전체가 이를 지지할 때 비로소 문화가 된다.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365일 무사고를 향해

TS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교통거점과 지역사회,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이어 갈 계획이다. 단발성 행사보다 일상 속 실천을 중심에 두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출발 전 차량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는 행동, 장거리 운전 전 충분히 쉬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서울역의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광안리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도 '오늘도 무사고'라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다.

오늘 하루의 무사고가 모여, 결국 대한민국의 안전한 내일을 만든다.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S,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인식 조사

참여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결되는 구글폼에 설문문항 5개(객관식) 답변과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6년 6월 30일(화)까지

당첨자 발표일
2026년 7월 15일(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스타그램

경품 지급일
2026년 7월 31일(금)

당첨 인원
20명

당첨 선물
커피 교환권 약 5,000원권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경품 수령 방법이 이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TS, 라이더 안전운전 리워드 챌린지 시행
이제는 신속배달 말고, 안전배달!
배달 문화도 안전해질 수 있을까?



배달 서비스가 일상인 시대. 거리 위 이륜차는 더 많아졌지만, 위험운전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TS는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상받는 방식'으로 처벌 중심이 아닌 보상으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운행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운전 라이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Rider 안전운전 리워드 챌린지'가 본격 추진된다.



'안전운전=혜택'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

TS는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사(우아한청년들)와 협업한 'K-Rider 안전운전 리워드 챌린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운전을 실천한 라이더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위치와 주행거리, 가속도 등을 자동 저장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과속이나 급가속, 급감속 같은 위험운전 여부를 분석하고, 안전운행 수준을 평가하여 리워드를 제공한다. '위반하면 처벌'이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하면 보상'받는 구조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라이더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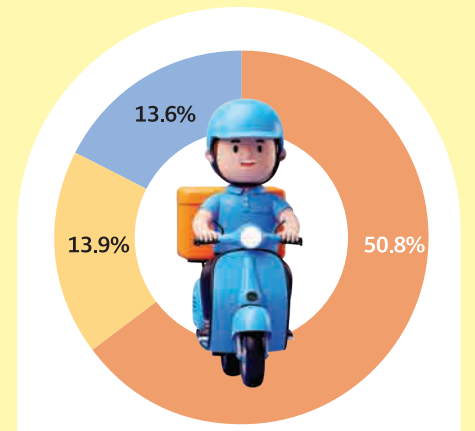
시민이 원한 안전문화형 정책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신호위반과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TS가 지난 1월 국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안전문화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배달 라이더 역시 도로 위 시민의 한 사람이며,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는 참여와 공감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배달이 일상이 된 시대, 제도도 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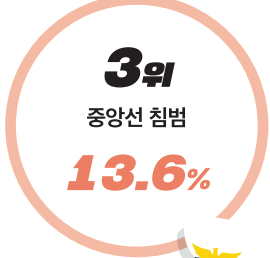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기동성이 높고 주행 패턴이 불규칙해 기존 자동차 기준만으로는 안전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TS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 이륜차에 특화된 위험운전 기준과 안전운전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상운송보험과 연계해 안전운전 라이더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배달은 이제 우리 일상의 중요한 이동 서비스가 됐다. 동시에 라이더 안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연결된다. TS가 추진하는 안전운전 리워드 챌린지는 새로운 교통안전 문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TS 이륜차 공익제보단 법규위반 신고 사례

TOP3



TS NEWS



TS, 비상시 자동차 문열림 국제기준 논의 주도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비상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새로운 안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TS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4월 21~23일 서울에서 '비상시 문열림 국제기준 논의 전문가 회의(TF EDO)'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가 사고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며 관련 기준 필요성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참여해 충돌이나 화재로 차량 전원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차량 내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 기준과 시험 방법을 논의했다.

TS는 이번 회의에서 침수 시 전동식 창문 장치의 안전 기준과 매립형 손잡이의 사용성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동차 안전 기준 마련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TS-네이버 해피빈, '오늘도 무사고' 온라인 캠페인

TS는 국토교통부,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오는 7월 2일까지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실천 서약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고는 방심에서 시작, 안전은 무조건에서 시작'을 주제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페이지에 교통안전 실천 다짐 댓글을 남기면 참여자에게 기부쿠폰 1개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TS는 캠페인을 통해 과속운전 금지, 무단횡단 금지, 스몸비 금지, 안전벨트 착용, 장거리 운전 시 휴식, 운행 전 점검 등 '오늘도 무사고' 안전수칙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해 약 2만 명이 동참했다. TS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TS-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 협력 강화

TS는 4월 29일 자동차융합기술원(JIAT)과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미래차 및 자동차부품 안전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안전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과 인프라를 연계해 국민 안전과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성 확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품질인증부품 개발 지원과 인증 확대, 배터리 등 미래차 핵심기술 안전성 확보, 연구과제 공동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TS는 자동차부품 인증과 시험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품질인증부품 제도 운영과 미래차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TS SNS Highlight

유튜브(숏츠 & 영상)



소음 점검의 모든 것 이륜차 소음 점검 가이드 A to Z

이륜차 소음 현장 점검, 복잡하고 헷갈려 본 적 없으신가요? 제대로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소음점검 #소음단속
#수시점검 #오토바이점검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증발? 트럭 운전석의 위험한 시야

대형 트럭의 사각지대! 운전석에서는 어디까지 보이는지 태신맨이 실험해 보았습니다.

#화물차사고 #트럭사각지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대형트럭



나와 우리를 지키는 약속 대중교통 만점 에티켓

대중교통 이용 만점 가이드! 모두의 무사고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3계명'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무사고 #대중교통
#지하철 #교통안전수칙



인스타그램



고유가 시대, 혼잡한 출퇴근길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난 만큼 안전도 지키고 혜택도 챙기는 똑똑한 출퇴근 함께해요!

#지하철안전 #버스안전
#혼잡시간 #오늘도무사고



교통문화지수로 본 운전자 제한속도 준수율

아직도 운전자 3명 중 1명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다?! 2025년 제한속도 준수율 65.68%

#제한속도 #속도준수
#교통문화지수 #운전습관



블로그



사람 많은 대중교통에서 깜빡! 물건 두고 내린 적 있다면 필독!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 기차 잃어버렸다고 아직 포기하긴 아쉽습니다!

#대중교통 #유실물
#본실물찾기 #생활꿀팁



03



일터에서의 작은 웃음,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함께라서 더 즐겁고,
그래서 더 따뜻한
마음과 가치를 이어 가는 이야기

Let's Go, Smile

즐겁게 웃자

GO



QR코드를 스캔하면
커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TS 김천드론자격센터

뜨거운 햇살 아래 찾아온
시~원한 행복

초여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연일 이어지는 교육 일정과 실습, 현장 교육, 시험으로 분주했던 직원들에게 선물이 도착했다. 도심과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뽕뽕 뭉쳐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는 김천드론자격센터. 한잔의 커피로 온 동네가 행복해진 그 현장을 공개한다.

더위를 뚫고 달려온 청량한 즐거움

갑자기 여름이 성큼 다가온 5월 14일, 김천드론자격센터 앞마당이 환하게 물들었다. 알록달록 귀여운 캐릭터 ‘텐주’가 보낸 커피트럭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한 웃음과 함께 커피트럭 앞으로 향했다. 그 반응에는 이유가 있었다. 경북 김천시 개령면에 위치한 김천드론자격센터는 축구장 약 6개 규모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갖춘 동시에 도심과 떨어져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에 식당이 없어 점심도 본사로 이동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샷이 들어간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건 저희에게 정말 큰 이벤트예요 사무실에 있는 인스턴트커피와는 또 다르니까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의 작은 여유와 설렘이 가득 번졌다. 김천드론자격센터는 비수도권 최초의 상시 드론 자격시험 전문시설이다. 드론 조종사 자격시험은 물론 교육과 장거리 드론 연구·실증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남부권 드론 산업 거점으로 조성돼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규모는 약 4만 1천㎡(약 1만 2천 평)에 달하며, 실기시험장 4면과 CBT 학과시험장, 활주로, 이착륙장, 정비동 등을 갖추고 있다. 일반 드론 자격시험뿐 아니라 장거리·대형 드론 실증까지 가능한 전문 인프라라는 점도 특징이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더 뽕뽕 뭉치는 느낌이 있다.
김천드론자격센터 최고!”

이정은 센터장은 “김천드론자격센터는 드론 조종사 양성과 안전한 드론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시험 기관”이라며 “무인멀티콥터와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수직이착륙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실기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평가 시스템과 드론 탐지정비, 비가시권(BVLOS) 기반 기술 등 미래형 드론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하게 웃는 직원들의 모습 속에는 바쁜 현장을 지탱해 온 서로에 대한 응원과 따뜻한 동료애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커피 한 잔에 더 가까워진 마음들

센터 직원 수가 많지 않은 덕분에 커피트럭 앞 풍경은 모처럼 한가롭고 여유롭다. 길게 줄을 서거나 주문을 재촉하는 사람도 없다. 직원들은 각자 취향에 맞는 음료를 받아 들고 과일컵과 핫도그를 고르는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지만,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하는 휴식 시간의 분위기는 또 달랐다. “자스민티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 보세요.” “커피 대신 캐모마일을 아이스로 마셔도 시원하고 좋아요.” 직원들은 음료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동료들에게 추천을 아끼지 않았고, 먼저 맛본 메뉴를 권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손에 음료를 든 채 셀카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에서는 오랜만의 여유와 들뜬 기분이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이런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조주용 책임은 김천드론자격센터만의 끈끈한 조직문화를 가장 큰 자랑으로 꼽았다. 그는 “큰 행사나 해외 일정처럼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서로 역할 구분 없이 함께 자료를 만들고 현장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면서도 같이 마무리하고 가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 우리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조주용 책임의 이야기에 경서희 인턴사원도 웃으며 공감했다. 입사 4개월 차인 그는 “센터에는 저희 직원들밖에 없어서인지 정말 잘 챙겨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며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더 뽕뽕 뭉치는 느낌이 있다. 김천드론자격센터 최고!”라고 힘줘 말했다. 막내 직원의 솔직하고 유쾌한 한마디에 현장은 다시 한번 웃음꽃이 만개했다.



하늘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커피트럭 앞에서 잠시 웃음을 나눴지만, 김천드론자격센터 직원들의 일상은 사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센터는 기존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드론 자격시험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며 지역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4,533명이 센터를 찾았고, 개소 첫 해와 비교하여 방문자가 두 배 가까이 늘 정도로 시험 운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무는 시험 운영에만 머물지 않는다. 센터는 드론 산업 변화에 맞춘 신규 자격제도 개발과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올해 5월 14일부터는 무인수직이착륙기(VTOL) 자격제도를 새롭게 시행했으며, 현재는 비가시권 드론 비행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미래 드론 산업 환경에 발맞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드론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 역시 김천드론자격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정은 센터장은 “센터는 드론 관련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기업지원실’을 무상 임대했다”며 “올해부터는 김천시와 협력해 지역 드론기업 육성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드론 자격제도와 인재양성 경험을 해외 신중국에 전수하며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며 “현재 KOICA ODA 사업에 선정돼 아프리카 가나 진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센터장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직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센터는 드론 관련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기업지원실’을 무상 임대했다



김천드론자격센터를 이야기할 때 인근 마을과의 특별한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처음 센터가 지어질 때는 마을 어르신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센터가 완공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 지역보육원 및 김천시 청소년 초청 진로 견학 프로그램 운영, 센터 시설(활주로, 드론비행장, 기업 공유사무실) 무상 개방, 지역민 우선채용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준 덕분이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복지시설(김천 베다니성화원) 아동들을 초청하고, 김천 울곡도서관과 협업해 아동·청소년 대상 진로 탐방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견학 프로그램은 직접 드론 조종을 체험할 수 있는 비행 실습과 함께 이론 및 안전교육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TS 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미래 항공 꿈나무들을 위한 진로상담 시간을 마련하는 등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해 늦은 시간에도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한 마을의 일원이자 동반자로서 잘 지내고 있지요.” 이정은 센터장이 활짝 웃는다.

직원들이 얼추 음료를 받아 가자 산물관리원으로 일하는 김화연 어르신이 찾아왔다. “주변에 있었는데 센터 직원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해서 왔다”며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받아 든 어르신은 연신 흐르는 땀을 시원한 음료로 식힌 뒤 “이곳 직원들은 언제 봐도 친절합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커피까지 대접받았네요. 고마워요”라는 유쾌한 인사도 잊지 않는다.

커피트럭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마을에서 차가 한 대 올라온다. 센터장님의 연락을 받고 마을주민들이 찾아온 것. 한창 포도가 익어 가는 시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간식과 시원한 음료를 준비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다. “우리도 먹고 경로당에도 갖다 드려야지.” “지금 일하는 젊은 친구들은 시원한

커피를 좋아하겠지?”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음료와 간식들을 챙긴다.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밭이었어요. 처음에 센터가 들어올 때는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생기고 나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마을에 활력도 생기고, 특히 직원들이 우리를 너무 잘 챙겨 줘요. 가로등도 밝고 환해서 밤에 다닐 때도 좋고” “난 저녁에 여기를 한 바퀴 쪽 돌면서 운동하잖아.” 하하호호 어르신들의 웃음이 시원하게 터진다.

바쁜 하루 속 잠시 멈춰 선 커피 한 잔이 선물한 웃음과 여유, 모두가 함께한 이 시간이 오래오래 이곳의 에너지가 되어 주길 바라 본다.



드론 분야 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Mini Interview



김천드론자격센터
조주용 책임

저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드론 사업 운영과 해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주용 책임입니다. 현재 ODA와 해외진출 협력 등 국내 드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를 '사무실에서 이륙 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내 드론 기술과 제도를 해외와 연결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때마다 직원들과의 협업과 소통,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센터의 자랑입니다. 이번 커피트럭 이벤트는 바쁜 업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 가며 웃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서로 믿고 협력하며 센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김천드론자격센터
오수연 과장

저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예산과 계약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영과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를 '센터엔진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적인 지원이 탄탄해야 센터 전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원들이 먼저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고민해 주는 분위기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으며, 이번 커피트럭 이벤트 역시 잠시나마 웃으며 재충전할 수 있었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응원하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천드론자격센터
이상구 선임

저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드론 자격제도와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시권(BVLOS)과 고중량 드론 등 미래 드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를 '드론위키백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드론 운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제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도와 시험 기준을 준비할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 보완해 주는 과정에서 김천드론자격센터만의 팀워크를 느끼고 있으며, 이번 커피트럭 행사 역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믿고 협력하면서 더 나은 드론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도시의 안전을 가꾸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무사고 문화

박영웅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도로 위에는 늘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벽과 밤, 비 오는 날과 출퇴근 시간까지 도시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택시기사들이다.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자 교통문화시민연대 박영웅 대표는 오랜 현장 경험을 시민 안전을 위한 제안과 실천으로 부지런히 이어 왔다.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도시의 교통안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들어 봤다.

현장의 경험이 만든 교통안전의 변화

2005년 출범한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울산의 택시버스 종사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단체다. 도로 위에서 매일 시민을 만나는 운전기사들이 직접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활동이 시작됐다. 특히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정보와 문제점이 빠르게 공유될 수 있었다. 이 같은 활동 속에서 박영웅 대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학원 차량 색상을 노란색으로 통일하자는 제안 역시 현장에서 체감한 위험 인식에서 출발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을 시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3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개선 사례로 이어져 장관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낳았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역시 같은 취지에서 펼친 활동이다. “울산은 산업단지 출퇴근 오토바이가 정말 많은 데다, 배달 오토바이도 크게 늘었어요. 사고가 나면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 건의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합니다. 사고가 자주 나는 곳, 신호 체계가 불편한 곳,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지점을 매일 마주하죠. 시민을 안전하게 모시는 도로 위는 운전자의 근무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 활동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무사고 운전자를 존중하는 문화

교통안전 활동의 중심에는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특히 박 대표는 수십 년간 무사고 운전을 이어 온 기사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에 힘써 왔다. 그가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울산개인택시조합에서는 매년 무사고 기사들을 대상으로 표창과 결의대회를 연다.

“30년, 40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분들도 예전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사고 상을 드리니까 기사님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결국 안전운전 문화도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 역시 1994년 택시 운전을 시작한 뒤 무사고 운전을 이어 오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했다. 안전운전을 위한 자기관리도 철저하다. 그는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되면 면허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밤에 사고 현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실제로 조합 총선소 인근으로 거처를 옮겨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키는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로 이어졌다. 오랜 기간 시민연대 활동을 이어 오는 과정에서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꾸준한 활동은 결국 사회적 신뢰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교통안전과 시민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그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시민연대에 대해 일부 존재하던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간 함께 활동해 주신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표창 수상 이후 박 대표는 동료이자 인생의 반려자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년 동안의 활동 기록과 자료들을 정리해 회보로 남기고 있다. 현장의 경험과 안전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통안전 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완성도 높은 교통안전이 지역사회 돌봄까지

박 대표와 시민연대의 활동은 단순한 도로 안전에만 머물지 않는다. 늦은 밤 병원 이동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 취약계층 돌봄, 보이스피싱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택시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동 수단인 만큼, 생활 안전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크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은 밤에 바로 병원에 갈 교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이동을 돕고 필요한 기관과 연결도 도와드립니다. 결국 교통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택시 호출 시스템 활성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 확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형 교통안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다.

TS와 함께 만든 안전 협력 모델

박 대표의 열정적인 교통안전 활동에는 TS의 역할도 컸다. 시민연대와 조합은 교통안전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TS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사고다발지역 개선 캠페인, 교통안전 교육,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활동에서도 협업이 이어졌다. 시민연대 측은 “TS는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주고 함께 논의해 준 기관이었다”라며 “교통 관련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안전 관련 대면 활동이 많이 줄어든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울산은 안전교육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교육 장소와 활동 여건이 더 개선돼 안전운전은 물론 안전보행 의식까지 함께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교통안전은 첨단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위험을 줄이고 안전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교통안전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로 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안전 대책이 만들어진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개선으로 연결하며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힘써 온 인물이다. 택시업계와 시민, 행정기관 사이를 오가며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고민해 온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27g으로 얻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 TS 탁구회

점심시간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2층 한편에서 경쾌한 탁구공 소리가 울려 퍼진다. 탁구대 위를 빠르게 오가는 하얀 공, 셔츠가 젖을 만큼 땀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직원들. TS 탁구회는 세대와 부서를 잇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형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9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 속에서 오늘도 탁구공 하나로 즐거움을 찾는 이들을 만나고 왔다.

탁구공으로 하나되는 우리

핑퐁 핑퐁, 평일 오후 7시, 본사 12층에 자리 잡은 탁구장이 열기로 뜨겁다. 탁구동호회 회원들의 열띤 랠리가 심 없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땀방울이 튀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심장 박동수가 요동친다.

1990년 창립된 TS 탁구회는 TS 내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동호회 중 하나다. 화려하고 감각적인 이름 대신 'TS 탁구회'라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그 역사 자체가 동호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 회원 수는 전국 지회까지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하지만, 본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은 약 10여 명 수준이다.

올해 새롭게 회장을 맡은 시미래전략실 김현진 실장은 그래서 '동호회의 활성화'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터뷰 내내 "젊은 직원들의 유입"을 여러 번 강조했다.

"처음 회장을 맡아 보니 잘 치던 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새로 채워지는 인원은 적어지는 분위기에서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신입 직원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TS 탁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적인 운영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전문 코치가 직접 TS를 찾아 회원들을 지도한다. 회원들은 레슨을 받은 뒤 곧바로 실전에 들어가 서로 게임을 하며 배운 기술을 몸에 익힌다.

취재 날에도 한쪽 테이블에서는 포핸드 자세를 교정받는 초보 회원들이 연신 구슬땀을 흘리고, 다른 쪽에서는 복식 경기를 펼치는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있었다. 코치가 "조금만 더 허리를 낮춰 보세요"라고 외치면 회원들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다시 라켓을 들고 공을 받아 낸다.

총무를 맡고 있는 혁신성과처 지정건 차장은 "사내 동호회 중 전문 코치를 주 2회 초빙해 정기 레슨을 하는 곳은 흔치 않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탁구

탁구회는 자유롭다. 점심시간에도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늘 열어 두고, 처음 온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공용 라켓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탁구는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운동"이라는 지정건 차장의 말대로 실제로 TS 탁구회의 분위기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만의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력 차이가 나더라도 경기 때 핸디캡을 적용하거나, 복식조를 적절히 섞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잘 치는 회원이 초보 회원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세를 알려 주고, 처음 라켓을 잡은 직원도 금세 웃으며 게임에 참여한다.

TS 탁구회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히는 탁구의 가장 큰 매력은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축구나 배드민턴처럼 격렬하지 않지만 운동량은 상당하고, 무엇보다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TS 탁구회는 2024년 TS의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바닥을 목재 구조로 교체했다. 이전에는 일반 사무실 바닥과 비슷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됐다. 밝고 환한 공간 역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다. 지정건 총무는 탁구를 두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운동'이라고 표현했다.

"탁구는 공에 계속 집중해야 하잖아요. 몸도 활성화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땀 흘리고 들어오면 오후에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업무 집중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는 특히 안구건조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따라 시선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 운동이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인공눈물을 자주 썼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컴퓨터만 계속 보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핑퐁 핑퐁, 사랑이 넘쳐요!

회원들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다. 온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며 업무만 하던 직원들이 탁구를 치며 땀을 쏟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이 어느새 사라지면서 가벼운 마음, 개운한 얼굴로 퇴근을 한다는 것이다.

탁구장 안에서는 직급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흐려진다.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쌓는다. 회식 중심 문화 대신 운동 중심 문화를 지향하는 점도 TS 탁구회의 특징이다. 지정건 총무는 "우리 동호회의 장점은 회식이나 뒤편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회원들과 크게 웃었다.

"술자리보다 운동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점심시간에도 편하게 와서 칠 수 있고, 저녁에도 자유롭게 운동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운동을 즐기는 분위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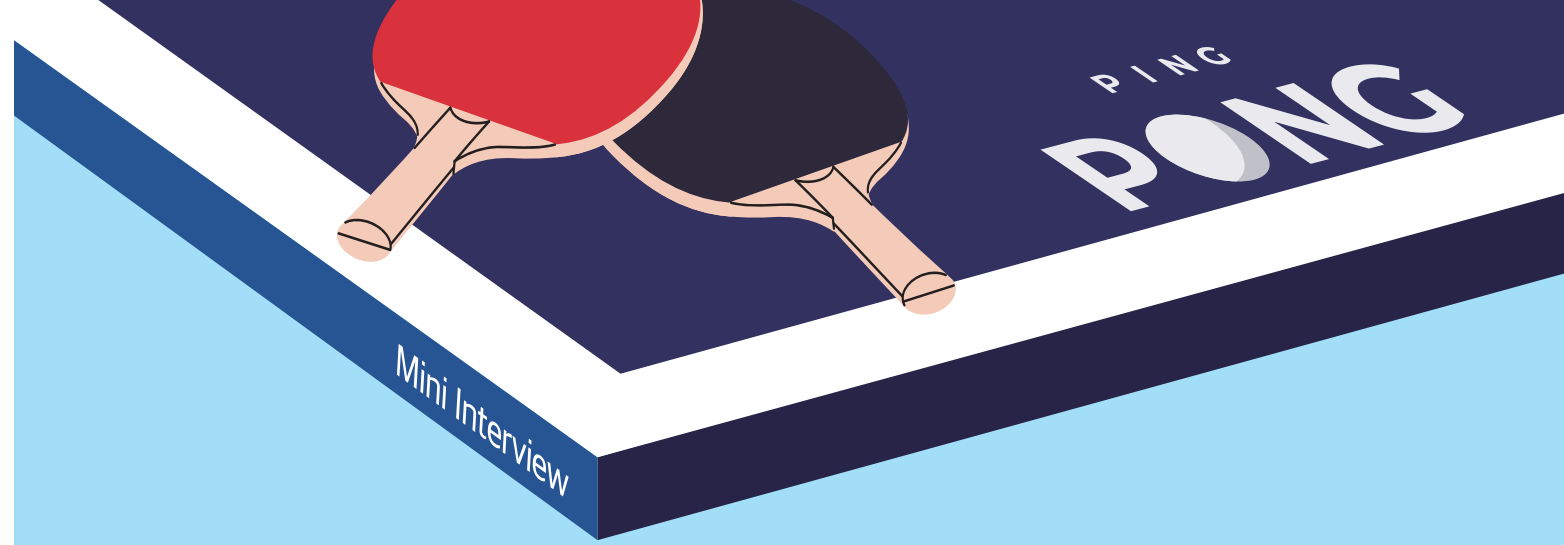
TS 탁구회의 활동은 사내를 넘어 지역사회로도 이어진다. 회원들은 매년 지역 보육시설을 찾아 아이들에게 1일 탁구 레슨과 2:2 탁구 경기를 진행하면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세탁기 등과 같은 물품 기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물품 후원에 이어 직접 몸으로 뛰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 아이들은 물론, 시설 관계자들도 무척 기뻐한다고.

지정건 총무는 "금전적 지원보다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놀아 주는 시간이 훨씬 큰 힘이 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즐거움은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의 교류전이다. 도로공사, 한전기술 등 다른 기관 탁구 동호회와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며 서로의 실력을 겨룬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상대 기관이 더 좋은 경우도 많지만, TS 탁구회 회원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TS 탁구회가 지금껏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사람'에 있다. 실력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승패보다 건강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 인터뷰를 마친 회원들이 다시 탁구대 앞으로 향한다. 누군가는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자세를 교정했고, 누군가는 복식 경기를 진행하며 연신 웃음을 터뜨린다. 라켓 끝에서 튀어 오르는 하얀 공 사이로, 오래된 동호회의 건강한 에너지가 탁구장 가득 번지고 있었다.

"탁구는 정신건강, 몸 건강에 정말 좋은, 부상 걱정이 적은 안전한 운동입니다. 실력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원희정 회원
자격교육처 부장

작년 3월에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평소 탁구에 관심이 있었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많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만 못 치는 것 같아 걱정도 했는데, 회원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코칭님 레슨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늘는 게 느껴지니까 운동도 되고 삶의 활력도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 배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다른 부서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호 회원
전산유지보수팀 부장

저는 전산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즐겁게 탁구 치시는 모습을 보고 동호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외주업체 직원임에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탁구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 가는 재미도 있고, 유산소 운동 효과도 상당합니다. 젊을 때 조금이라도 배워 두면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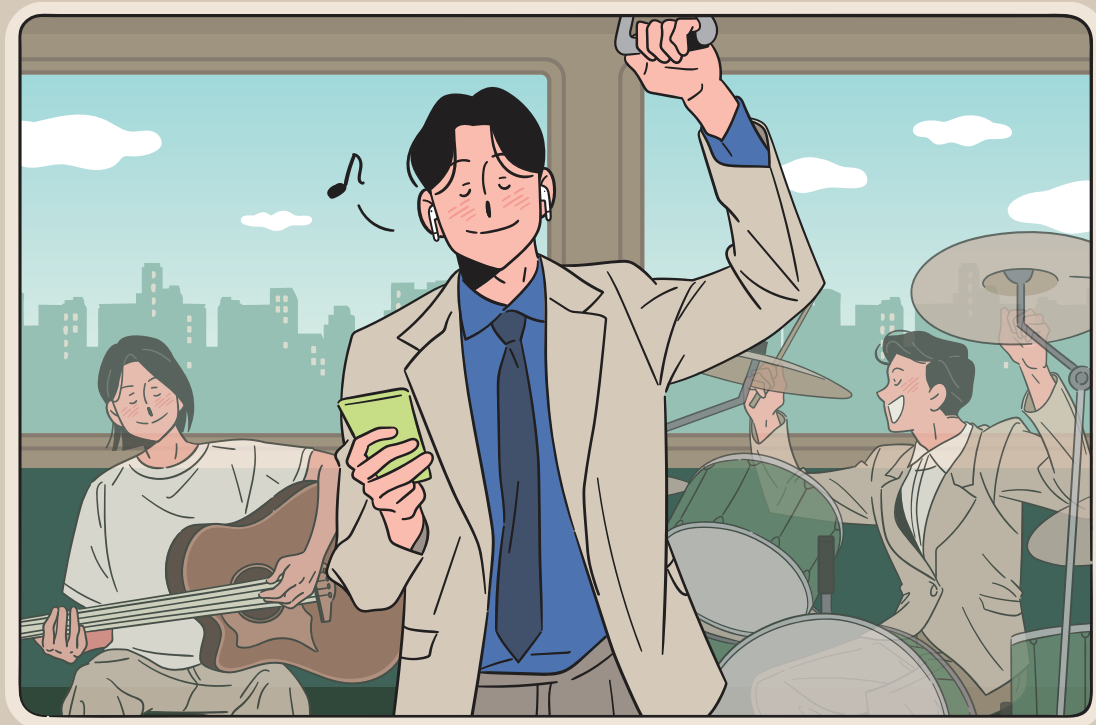


김중하 회원
충북지역본부 안전관리처 부장

2019년에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예전부터 탁구를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사내 동호회에 레슨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제대로 배워 보려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세도 안 좋고 실수도 많아 부족했지만, 회사 동료들이 편하게 대해 주고 배려해 주셔서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탁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 업무에 있어서도 실패에 대한 과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탁구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람 사이의 유대감도 깊어지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일단 가입해 보세요.

천하제일~ 폴리자랑~! 여러분만의 출근길 BGM을 들려주세요!

피곤한 아침, 걸음은 무겁고 눈꺼풀은 자꾸 감겨 오는데...
하지만 출근은 해야 하는 법! 텐션을 끌어올리는 K-POP,
잠을 깨우는 록, 심신의 안정을 도와주는 클래식까지,
TS 임직원의 출근길 BGM 전·격·공·개



아일릿(ILLIT)
It's Me

민원처리 업무 전에
떨어진 자존감 높이는 노래
yu****@

Hisaishi Joe(히사이시 조)
바다가 보이는 마을(마녀 배달부 키키 ost)

지하철 타고 가는 출근길이 힘들어서
회사까지 날아가고 싶어요~
dc****@

쏟애플(Thornapple)
계와 수돗물

하이라이트 가사가 '살아가자'로 시작하는데 이 가사가 삶을 이겨내고 헤쳐 나가야 할 무언가로 보는 것 같아서 매일 조그마한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같이 무언가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함께 오늘을 잘 살아낼 서를 옆자리의 선임분들이나 동기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저만의 숨은 명곡입니다.
ch****@

박태훈
모의고사

가사 중에 "난 말이야, 오답들을 배워 갈수록 하나, 둘 정답을 찾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 들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들려도 괜찮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않도록 다잡아 줍니다!
ss****@

이보람
형(兄)

힘든 출근길에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돼요.
특히 이보람 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듣다 보면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서 매일 아침 꼭 챙겨 듣는 곡입니다!
mi****@

Epik High(에픽하이)
NO THANXXX(노뎡큐)

오늘 하루 과업 수행을 위한 멘탈 강화를 위한 음악! 에픽하이의 노뎡큐를 꼭 들읍시다!!
u****@

10CM
너에게 당기를

따뜻한 가사와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멜로디로 바쁜 출근길에도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노래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dm****@

DAY6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여러분, 혹시 출근길이 한 편의 청춘 드라마 오프닝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노래를 재생하는 순간, 꽉 막힌 버스 안, 텅텅한 공기 속에서도 멤버들의 시원한 고음을 듣고 있으면 막혔던 가슴이 땀 뚫리는 기분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 더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달까요?
sw****@

가호(Gaho)
시작

출근길 에너지 충전을 위해 듣는 노래.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ae****@

PENTAGON(펜타곤)
빛나리

제 출근길 폴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빛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아침마다 듣고 있는데 노래만 들어도 설렘 가득 출근길이 되어 잠도 깨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lee****@



04

여행길에 스치는 풍경,
길 위에서 마주하는 문화,
일상 속 작은 경험과 깨달음까지.

우리가 걷고, 머물고, 바라보는 모든 순간에는
안전과 문화,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교차합니다.

그 정겨운 만남 속으로,
다 함께 떠나 볼까요?

다함께 가자

GO

Let's go together!

Unboxing Tour

바야흐로 페스티벌의 계절, 이런 축제는 어떤가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일상의 지루함을 깨뜨릴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전국의 축제 현장으로 눈을 돌려 보자. 시원한 수박부터 보랏빛 수국, 그리고 달빛 아래 역사 산책과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여유까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장한 네 가지 축제를 소개한다.



Yangpyeong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여름의 맛 양평 수박축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을 주인공으로 한 '양평 수박축제'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서 열린다. 청운면은 물 맑은 양평 안에서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수박으로 이름난 곳이다. 축제 현장인 용두시장 일원에 들어서면 산지에서 갓 수확한 고품질 수박들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찌른다.

'양평수박 3W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축제는 수박(Watermelon), 물놀이(Water), 건강(Wellness)을 테마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갓 수확한 싱싱한 수박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라마켓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축제의 백미다. 화려한 손기술을 뽐내는 '수박 카빙 대회'와 '수박 빨리 먹기 대회' 등 이색 이벤트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동네 가수왕을 뽑는 '수박 가요제'는 흥겨움을 더한다. 특히 수박화채 만들기 체험은 무더위를 단번에 날려 버릴 최고의 즐길 거리다. 아이들을 위한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물놀이 구역 또한 운영한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잘 익은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 📅 일시: 2026.07.04.(토) ~ 07.05.(일)
-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민속장터길 2, 청운용두시장 일원
- ☎ 문의: 청운면사무소 031-770-3232
- ★ 여행팁: 축제장에서 파는 수박은 당도가 보장되니 믿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청운면사무소

꽃의 파도가 일렁인다 거제 남부면수국축제

Geoje

6월 말,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 일대는 파스텔톤 수국으로 화려하게 물든다. 바다와 맞닿은 해안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수국 군락지는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 되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축제의 즐거움은 꽃 구경에만 그치지 않는다. 저구마을의 마스코트 '구리'와 함께하는 포토존은 물론, 매물도 여객터미널 특설무대에서는 주민 참여 공연과 어쿠스틱 버스킹이 펼쳐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한다. 저구항 뒤편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사해수욕장에 닿는다. 이름처럼 '모래가 맑고 고운' 이곳은 수국과 푸른 남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전국적인 '인생 사진' 명소로 손꼽힌다. 물이 맑고 수심이 완만하며 파도가 잔잔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이다. 백사장 뒤편으로 우거진 소나무 숲은 천연 그늘막이 되어 주니, 바닷바람을 맞으며 캠핑이나 휴식을 즐기면 한여름의 더위를 잊을 수 있다.

- 📅 일시: 2026.06.27.(토)~06.28.(일)
- 📍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 일원
- ☎ 문의: 남부면사무소 055-639-6101
- ★ 여행팁: 인근 '근포마을 동굴'을 함께 여행해도 좋다.



달빛 아래 깨어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 강릉 국가유산야행

강릉시 강릉대도호부관아와 명주동 일대에서 '2026 강릉 국가유산야행'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달빛 아래 깨어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을 주제로, 평소 야간에 문을 닫았던 국가유산들을 개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밤의 정취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야경(夜景), 야식(夜食), 야로(夜路) 등 8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주요 볼거리는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와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다. 명주동 골목에서는 지역 설화와 수제 맥주를 결합한 '명주동 감맥'이 운영되어 지역색을 더한다.

강릉대도호부관아의 다채로운 행사와 서부시장 야시장은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야행은 실감형 미디어 아트와 스탬프 투어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강릉문화원

📅 일시: 2026.08.14.(금)~08.16.(일) 18:00~23:00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도호부관아,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

☎ 문의: 강릉문화원 033-823-3212

★ 여행팁: 행사 기간 중 행사장 주변 도로가 통제된다. 강릉역이나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

Gangneung



©강릉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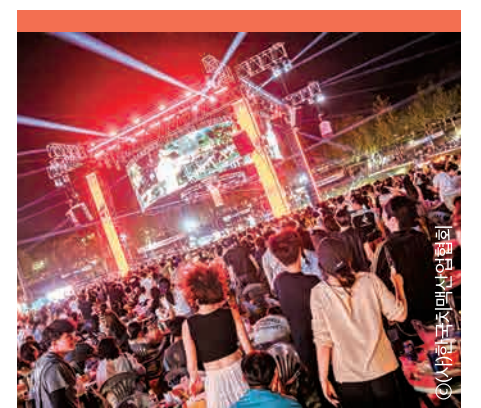
여름보다 뜨거운 치맥의 성지 2026 대구치맥축제

Daegu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의 본고장 대구에서 '2026 대구치맥축제'가 열린다. 대구는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시작된 '치킨의 성지'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예비 글로벌 축제로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장 특설무대에서는 대형 EDM 파티와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매일 밤 펼쳐진다. 특히 무더위를 식혀 줄 '치맥 아이스 팝'과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즐기는 워터존 시설이 확충되어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바삭한 치킨부터 이색적인 퓨전 요리까지 수십 종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수제 맥주와 브랜드 맥주가 더해져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글로벌 축제 위상에 맞춰 외국인 전용 라운지도 운영한다.



©(사)한국치맥산업협회

📅 일시: 2026.07.01.(목)~07.05.(일)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두류공원 일원

☎ 문의: 053-248-9998

★ 여행팁: 야외 돛자리, 손선풍기, 물티슈 등을 챙기면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표지판의 인문학 '일단 멈춤'의 역사

역사는 가장 위험한 순간 사람을 살린 건 '가속'이 아닌 '멈춤'이었다고 말한다. 로마를 구한 장군의 결정적 브레이크부터 도로 위 '일단 멈춤' 표지판까지, 문명은 늘 속도를 조절하는 법 위에서 역사를 새로 써 왔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단 멈춤' 표지판 속 안전과 질서의 의미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로마를 구한 '일단 멈춤'

왜 계속 멈추는가. 그 시절 많은 이가 로마 장군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기묘한 행보에 의문을 품었다. 그럴 만도 했다. 당장 로마는 무너질 위기에 있었다. 카르타고의 천재적 지략가, 한니발 바르카가 대군과 함께 기어코 알프스를 넘었다. 어느덧 로마의 크고 작은 도시를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 큰 로마 정치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다. 앞뒤 썰 시간 따위 없고, 지금 당장 맞서 싸워야 한다고. 조급함이 턱 밀까지 차오른 결과였다.

파비우스는 속도를 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무리해서 길을 가로지르지 않았다. 어둠이 깔리고, 날씨가 험악해지는 등 '멈춰야 할' 신호가 오면 곧장 속영지를 꾸렸다. 그에게는 곧 별명이 생겼다. '굳은 자(Cunctator)'. 이는 실상 '느려터진 자'라는 놀림과 조롱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파비우스가 끝내는 로마를 구하는 데 있어 결정적 계기를 만든다. 알고 보니 파비우스는 한니발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 그는 진작부터 한니발 군대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넉넉하지 못한 보급이었다. 그래서 멈춘 것이었다. 일부러 싸움을 미루고, 병력을 아끼며 시간을 끈 격이었다. 분위기 반전을 가속이 아닌, 적절한 때 밝은 브레이크로 이룬 셈이었다. 그렇다.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병력을 아끼며 시간을 끈 격이었다. 분위기 반전을 가속이 아닌, 적절한 때 밝은 브레이크로 이룬 셈이었다.

속도를 능력으로 믿는 순간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의 현대 사회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복해 오해하는 점이 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일단 멈추는 순간 나만 손해라는 게 그것이다. 당장 차를 탈 때부터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도로 위 곳곳에서 '일단 멈춤' 표지판을 마주한다. 읽는 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사실, 읽기도 전에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그저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운전자는 이를 가볍게 여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일조차도 넘어가곤 한다. 일단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 일. 오늘, 그리고 내 일에는 이 행동이 약속빠른 '효율' 정도로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관성은 어느 순간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아주 비싼 값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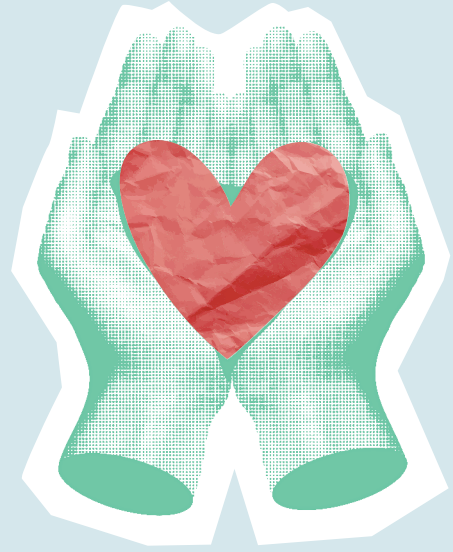
그 한 번의 생략

실은, 이처럼 거창한 사례들만 들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많은 경우가 '멈추지 않아'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심지어는 현장에도 있어 봤기에 알고 있다. 한적한 골목, 신호 없는 교차로, 갑작스러운 우회전 통로... "바쁘니까",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혼잣말과 함께 방심하는 순간, 그렇게 또 확인을 자연스럽게 생략할 수 있다. 그 찰나의 생략이 본인, 아울러 미처 알아보지 못한 타인의 삶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수개월의 치료와 수백만 원 비용, 평생의 후회라는 대가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일단 멈춤' 표지판은 단순히 정보 전달 장치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닌 것이다.

속도는 곧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인류의 오해. 이것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응집일지도 모른다. 파비우스가 온갖 비난 틈에서도 성실히 브레이크를 밟은 건 비겁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당장 1분 1초를 아끼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양보는 쉽다. 내 차의 속도를 적절한 때 늦추거나 멈추면 상대 차는 먼저 가거나 차체를 돌 공간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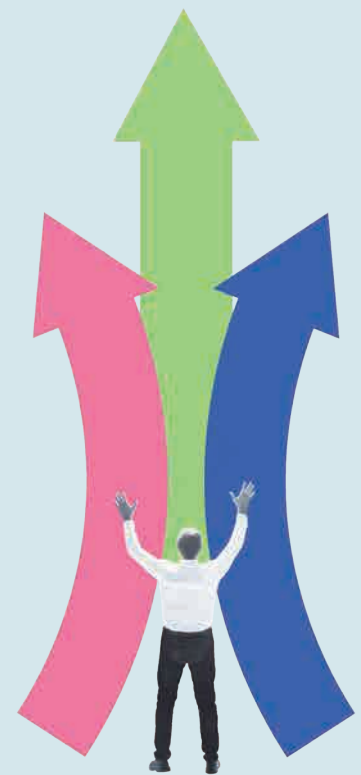
손해가 만드는 질서

'양보' 표지판도 마찬가지다.

양보는 쉽다. 내 차의 속도를 적절한 때 늦추거나 멈추면 상대 차는 먼저 가거나 차체를 돌 공간을 얻는다. 한쪽은 한 발 물러서고, 다른 쪽은 한 발 앞서간다. 역시나 직관적으로만 보면 이득과 손해가 즉시 같린다. 다만, 이 또한 나만 손해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그 문구를 무시하는 순간, 결국은 곳곳에서 지독하게 경적이 울릴 수밖에 없다. 이 표지판 자체가 대개 복잡한 도로 위에 세워져 있기에 더욱 그렇다.

'유턴 금지' 표지판도 다를 바 없다.

나의 조급함, 상황의 급박함을 또 핑계 삼아 아무 곳에서도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순간 일대의 흐름은 흐트러진다. 때로는 도로 전체가 엉키고 꼬일 수도 있다. 질서는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감수할 때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진리다. 재차 정리하자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양보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경고하고 있을 때 이를 거둬 무시하는 일. 그러면 멀리서 잠들어 있던 재앙도 손짓하며 불러낼 수 있다.



문명의 유지 조건

그리고 보면, 인류를 최악의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뻔한 쿠바 미사일 위기도 '일단 멈춤'과 '양보', '유턴 금지'를 잘 지킨 덕에 넘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아주 작은 오판 하나로도 전 세계가 불바다에 잠식될 수 있었던 시기. 협상의 열쇠를 쥔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최고 지도자는 말 그대로 일단 멈췄다. 극한 대립과 강대강의 물리적 충돌이 이뤄지기 직전, 양국은 핫라인을 개설하고 의사소통을 이어 갔다. 그렇게 시간을 벌고, 결국 각자의 조급함을 누른 채 파국을 피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냉전은 한층 강화됐지만, 세계는 이번 브레이크로 인해 대참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브레이크는 사소한 기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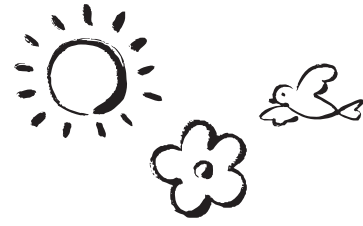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그 질서는, 웬만큼 거창한 법령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탱해 준다. 우리는 오늘 또 '일단 멈춤' 표지판을 마주할 수 있다. 이제는 그것이 번거로운 시설물이 아닌, 역사가 고안한 가장 강하고도 직관적인 안전장치로 보일 것이다. 많은 비극은 일단 멈추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단 한 번의 브레이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도 '일단 멈춤'과 '양보', '유턴 금지'를 잘 지킨 덕에 넘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교통안전

Why? How?



평소 독자들의 생활 속 교통안전 궁금증을 사연을 통해 풀어보는 코너.

#정윤○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회전교차의 차선이 하나일 경우 회전 차량이 우선으로 진입 차량이 조심해서 들어가고 나가면 되지만, 차선이 두 개일 경우 1차선에서 바로 나가다가 2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차선이 여러 개일 경우 이동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특히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안쪽 차로에서 바로 빠져나가려다가 접촉 사고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이 우선이며, 다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차로를 유지한 상태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쪽(1차로) 차량이 바깥(2차로)을 가로질러 바로 빠져나오면 상황에 따라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 1차로(안쪽 차로)
- 직진·좌회전·유턴처럼 더 많이 회전할 차량 중심
- 안쪽 차로는 회전 지속용에 가깝고,
- 바깥 차로는 진출에 유리한 차로입니다.

1차로(안쪽 차로)



- 계속 회전 가능
- 먼 출구 이용에 적합
- 출차 전 바깥 차로 상황 확인 필요

- 2차로(바깥 차로)
- 우회전하거나 가까운 출구로 나갈 차량 중심

2차로(바깥 차로)



- 가까운 출구 이용에 유리
- 회전 중인 차량과 합류 차량 주의

가장 안전한 방법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전교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입니다.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빠져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합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서행하고, 회전 차량을 우선시합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접촉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미○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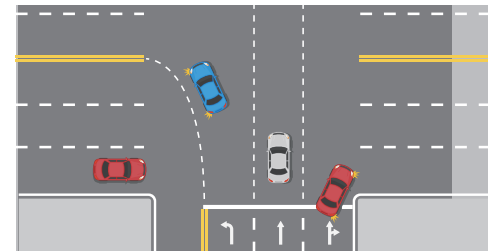


교차로 2개 차선 중에서 2차로는 좌회전이 안 되나요? 며칠 전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1차로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싸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1차로 운전자는 '1차로만 좌회전이 된다'라고 하고 2차로 운전자는 '2차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서로 주장해서 싸움이 커졌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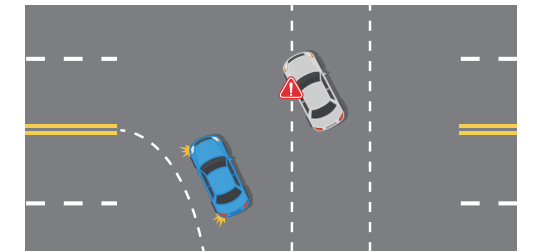
A

좌회전 가능 여부는 '몇 차로인가'보다 차선 표시와 도로 안내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무조건 '1차로만 좌회전'도 아니고, '2차로도 당연히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닥 화살표와 차로 지정 표시입니다.

1차로에만 좌회전 화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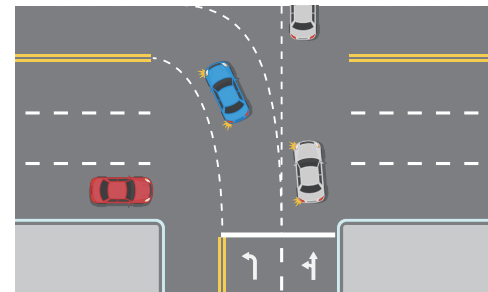


→ 1차로만 좌회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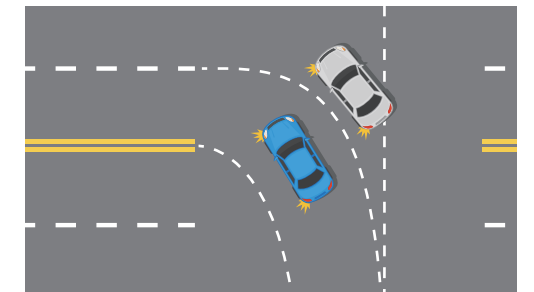


→ 2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면 위반

1·2차로 모두 좌회전 화살표



→ 두 차로 모두 좌회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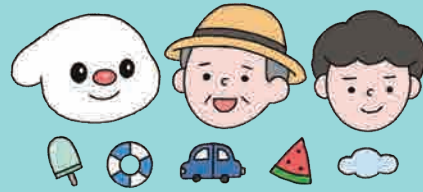


→ 다차로 좌회전 방식



→ 1차로 차량은 좌회전 후 안쪽 차로 진입

노면 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왼쪽 차로가 좌회전 차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면 표시가 없더라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뒤차 입장에서는 직진 예상 가능성이 크고 사고 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도 되나?' 고민된다면 멈추고 살피는 우회전 이야기

#우회전 #일시정지 #6월집중단속



안전한 우회전
이 2가지만 기억해요!



1. 전방 빨간불 일시정지



2. 횡단보도 내 보행자 여부 확인



TS Talk톡



QR 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에서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였더라?

정**(chia2@)

골목 끝 작은 삼거리였다. 나는 좌회전을 하려고 멈춰 있었고, 맞은편에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며 우회전을 대기 중인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 좁은 데다가 일방 통행 도로라 서로 먼저 움직이면 엉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직진 차량들이 한참 지나가기를 기다린 뒤,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다.

맞은편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다. 누가 먼저 갈지 묻는 듯한 순간이었다. 나보다도 더 오래 기다린 듯한 상대편에 나는 손짓으로 먼저 가시라고 표시했다. 상대 차량은 천천히 출발했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옆자리에 있던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너 되게 착하다.”
“어차피 우회전 우선이 아니야?”
“저긴 출차잖아. 도로 주행 중인 네가 먼저지.”

그 말을 듣고 조금 머쓱해졌다. 배려심이 대단해서 양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우회전 차량이 우선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정확한 법규도 잘 몰랐다. 그런데 소 뒷걸음질로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통안전이라는 건 거창한 기술이나 대단한 운전 실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누가 먼저인지 애매한 순간에 잠깐 기다려 주는 마음, 상대의 움직임을 한 번 더 살피는 여유,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짧은 배려 같은 것들. 그런 작은 순간들이 길위의 안전을 만든다는 걸.

그날 나는 도로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로는 평화로웠다. 어쩌면 명확한 법 지식보다 필요한 건 서로를 조금 배려하려는 마음이었는지 모른다.



TS Talk톡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일상에서 교통안전을 지켜 뿔뿔했던 순간이나 일상 속 교통안전 히어로로 만난 경험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내 주세요. 교통안전 사·수필·사진·그림도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연은 카툰으로 재구성하거나 <TS 매거진> 'TS Talk톡'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기간: 상시 참여 가능
방법: tsmagazine2@gmail.com
선물: 선정된 분에게는 커피 5만 원 교환권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나들이 전용 운전자

김**(kimhy23@)

“아빠, 오늘은 제가 운전할 테니 점심에 맛있게 막걸리 한잔하세요~!”

“아이구, 좋~지!”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주말 나들이가 있는 날이면 제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반주로 막걸리를 즐기시는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분을 모시고 근교로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아버지는 운전 걱정 없이 차 안에서 지인분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한 시간 정도 산책 후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식사와 함께 그 지역의 막걸리 한 병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나주 영산포에 홍어를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삼합과 막걸리는 최고의 궁합이지요. 마음 편히 막걸리를 드시는 세 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뿌듯한 마음이 돕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운전으로 가족끼리 나들이를 다녔지요. 그때는 아버지도 운전을 해야 해서 마시고 싶은 막걸리도 꼭 참으셨을 테지요.



‘아빠, 이제는 제가 운전할 테니 마음 편히 드세요.’ 속으로 외쳐 봅니다. 이렇게 제가 운전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니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돕니다. 무사히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느끼는 안도감과 뿌듯함. 앞으로도 이렇게 부모님의 나들이 전용 운전자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국민과 더 가까이
함께 더 높이**

하늘길 여정이 시작되는
전국 14개 공항

여객의 발걸음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뢰와 공감을 쌓아갑니다.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을 앞당기도록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TS 매거진 봄호를 읽고

*당첨자는 이름 첫 글자와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 표기



TS 매거진 봄호에서 특히 유익했던 부분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최신 정책과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교통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TS매거진을 기대합니다.

박○○ 4621



‘미래 모빌리티, 첨단 기술만큼 보안도 중요하다’ 자율주행차 해킹이 던지는 새로운 교통안전 과제/현실적인 내용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 9285



교통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를 다룬 코너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읽는 내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 5821



‘TS 뉴스룸’ 코너가 가장 유익했습니다. 최신 교통안전 정책과 실생활에 밀접한 통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평소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 2907



업무 자동화나 자료 정리에 AI를 활용하는 팀이 특히 유익했습니다. 실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 9062

지난호 당첨자	김○○ 8687	박○○ 4621	박○○ 9285	김○○ 2907	김○○ 8592
	장○○ 4459	김○○ 9062	이○○ 4312	김○○ 6843	김○○ 5821



사진 속 공간 맞추기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TS 매거진 2026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올해 발간된 TS 매거진 봄호와 여름호를 읽고 후기를 들려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사진 속 공간 맞추기 당첨자

- 이○○ 2062
- 이○○ 0119
- 김○○ 1424
- 조○○ 0079
- 이○○ 6065
- 안○○ 3776
- 김○○ 8957
- 박○○ 6240
- 최○○ 8020
- 권○○ 9856



6월 30일까지 TS 매거진 여름호를 읽은 후기를 보내 주시면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매거진 구독/취소, 주소 변경 신청 T. 02-6255-6226

사진 속 공간 맞추기 이벤트

TS 매거진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진 속 공간이 어디인지 정답을 맞춰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1

수도권 및 충남 북부지역 운수종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개소한 이곳은? ○○ 운전적성정밀검사장

힌트 본문 10P 참조



Q2

‘TS 커피 충전소’에 소개된 TS 지역본부는 어디일까요? TS ○○○○자격센터

힌트 본문 44~49P 참조

다함께 가자GO

TS 색칠 시간

그림 이정화

탠주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색칠 시간



비가 올 땐 밝은 옷을 입어야
운전자 눈에 잘 띄어 안전해!



탠주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색칠 시간
이벤트 안내

참여 방법: 큐알 코드 스캔 후 색칠한 사진 찍어 업로드
참여 기간: 6월 30일(화)까지
당첨자 발표: 가을호 TS 색칠 시간에 게재
선물: 선정된 다섯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



복호 당첨자
도○○ 3229 박○○ 2486
송○○ 8736 이○○ 0982
황○○ 2011

사업용 차량 운전자 안전의 종착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놀라운 효과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 담당자 인터뷰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계기판 아이콘 모음 ZIP!	최악의 운전자 유형 공유
8P	12P	14P	18P	20P
TS Talk톡 독자 에세이	<h2>페이지를 닫기 전 다시 한번 GO!</h2> <p><TS 매거진> 여름호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p> <p>지금, 책장을 덮기 전 이번 호에서 놓친 콘텐츠는 없는지, 스쳐 지나가 기억이 흐릿해진 페이지는 없는지, '즐거찾기'에 담아두고 싶었는데 깜빡한 이야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요.</p> <p>교통안전과 기술, 사람과 일상을 아우른 이번 여름호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p>			여름 휴가철 차량 안전 가이드
74P				24P
6월 집중단속! 올바른 우회전 방법				골든타임을 지키는 스마트 기술
72P				26P
교통안전 WHY? HOW?				약물운전의 위험성
70P				30P
표지판의 언어 '일단 멈춤'의 역사	페스티벌의 계절, 이런 축제는 어떤가요?	TS 탁구동호회	TS 파트너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인터뷰	TS 김천드론자격센터 커피 충전 완료!
66P	62P	54P	50P	44P